



근대 엔지니어의 성장

이내주 외 지음

전기·화학공학자 성장 분석

근대 엔지니어의 역사와 양성체계를 다룬 책이 발간됐다. 이내주 육군사관학교 교수 등 8명의 저자가 펴낸 '근대 엔지니어의 성장'은 근대 엔지니어의 탄생과 성장에 얽힌 전체상을 들여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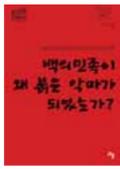
제1차 산업혁명기인 18세기 후반~1870년대 유럽과 미국의 기술자 양성은 장인의 작업장에서 대학과 기술학교의 실습실, 실습실로 이동했다. 이 같은 변화를 선도한 것은 토목공학과 기계공학 분야였다.

제2차 산업혁명기인 1870년 이후에는 전기공학 및 화학공학 등이 신산업 분야였다. 이 시기에는 체계적인 공학 제도를 확립한 독일이 과학 기반 특성이 강한 전기공학과 화학공학 분야를 이끌었다.

이처럼 책은 오늘날까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공학 및 화학공학 계통 엔지니어의 탄생과 성장을 분석한다.

〈에코 리브르·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백의민족이 왜 붉은 악마가 되었는가?

이오덕 지음

뿌리깊은 교육문제 해법은

참교육자 고(故) 이오덕 선생의 '백의민족이 왜 붉은 악마가 되었는가?'가 나왔다. 이 책은 '이오덕 교육 문고' 시리즈 열 번째 책으로 2004년 출간됐던 '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다'를 새롭게 펴낸 것이다.

이오덕 선생은 2002년 여름, 우리나라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와 온 국민이 참여한 붉은 악마의 응원을 화두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지적한다. 교육 문제와 교육개혁의 나아갈 길, 우리글과 우리말을 바르게 쓰는 문제 등을 살살이 밝혀준다.

이오덕 선생은 '붉은 악마' 함성이 8·15 해방 때 온 겨레가 외쳤던 함성과 똑같은 '해방'의 소리로 들렸다고 표현한다. 붉은 악마의 외침을 온갖 억압구조에 숨통 막혔던 것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억눌렸던 정신의 표현'으로 파악한 것이다.

〈고인돌·1만5000원〉

/김경민기자 kki@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적응'하면 돈 번다?

온난화라는 뜻밖의 황제

맥켄지 펄크 지음



온난화가 뜻밖의 황제가 될 수 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흥미를 넘어 도발적이기까지 하다.

지금까지 온난화는 지구의 대재앙으로 여겨졌던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황제보다는 악재, 수익보다는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왔다.

그도 그럴 것이 지구의 온도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북극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한계선도 점차 올라가는 추세다.

환경오염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인류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인류가 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은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연료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까운 장래에 닥쳐올 상황에 맞춰 대비하는 것이다. 전자가 흔히 말하는 '완화'라면 후자는 '적응'이다.

정유회사, 시베리아·북극해 근처 유정 투자

이스라엘, 빙하 녹는 알프스에 제설기 판매

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책이 나왔다. 탐사보도 전문가로 유명한 맥켄지 펄크가 펴낸 '온난화라는 뜻밖의 황제'는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저자는 기후변화를 사업기회로 활용할 다양한 사례를 고찰한다. 그는 수년간 취재를 통해 온난화에 대한 전향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연 '재해'는 세 가지다. 해빙, 가뭄, 홍수가 바로 그것인데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

북극의 만년설 면적은 매년 작아지고 있다. 2012년 여름에는 미국보다 더 넓은 457만 평방마일(약 1188만km²) 얼음이 사라졌다.

지구의 최고 천연 수자원인 만년설원과 빙하가 줄어들므로 가뭄 현상도 가속화된다. 콜로라도의 산불, 중국 북부 지역의 물 부족, 스페인의 사막화 등은 가뭄에서 비롯됐다.

만년설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홍수가 일어난다. 섬나라와 해안도시를 위협하는 홍수는 온난화가 가속화될수록 빈번하게 일어난다.

저자가 파악한 바로는 해빙, 가뭄, 홍수 순서(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온난화는 짧은 스키 시즌이고 더 비싼 뱀 덩어리이며 새로운 사업기회"인 셈이다.

세계 최대 정유회사는 화석연료의 가치가 계속될 거라 예상하고 시베리아, 북극해 근처 유정에 투자한다. 그뿐 아니다. 이스라엘은 제설기를 만들어 빙하가 녹고 있는 알프스에 판매하고 있다. 곡물 산지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가는 수단의 농토를 군부에게서 구입한다.

향후 기후변화는 세계의 불균형을 심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 재앙을 이용한 돈벌이가 과연 정의로운가?" 정의를 앞세우는 미국은 왜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위한 국제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을까?

기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상이하다. 어떤 이는 온난화를 비즈니스에 연계한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닥쳐올 문제라면 '적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황제'까지는 아니어도 '적응'해야 하는 것은 맞을 듯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온난화 '뜻밖의 황제'를 얻을 것 같은 이들은 대체로 그 온난화에 책임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대체로 과학이나 경제 또는 환경적 이슈라는 틀에 끼어 있지

만, 인간적 정의라는 이슈로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이 점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처음북스·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당신의 눈이 머물고 있는 사물은?



시인의 사물들

강정 외 지음

"찌가 꿈쩍하지 않을 땐 하늘도 보고 산도 본다. 날로 사나워지는 녹음 속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움직일 짐승들과 그들의 바쁜 발자국과 또 이것들을 품고 있는 흙들의 표정을 생각한다. 커피를 마시면서, 인제 도시에서는 아예 범죄 취급을 받는 담배도 맛있게, 마음

껏 피운다..." <전동균 '찌' 중에서> 시인들은 사물을 통해 영감을 얻고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사물은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창이자, 타자를 받아들이는 매개체다.

강정 등 52명의 시인이 사물 하나씩을 골라 쓴 에세이집 '시인의 사물들'은 이런 시집이다. 시인의 눈을 빌려 사물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그 속에서 삶의 철학을 끌어낸다.

허연 시인은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진 '타자'를 보며 습작시절을 반추하고 전영관 시인은 '냉장고' 속 생물들의 기원을 더듬어 올라간다.

이승희 시인은 '국수'를 통해 유년 시절 국수발이 휘날리던 마당에서 놀던 기

억을 더듬는다. 함성호 시인은 '치마'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연인에 대한 단상을 풀어놓고, 전동균 시인은 '찌' 위에 담긴 꿈과 후회의 기억을 더듬는다. 박찬세 시인은 뒤란에서 지식들의 안면을 기원하던 어머니의 새벽 '정화수'를 시의 소재로 떠올린다.

사물은 어느 곳이나 놓여 있다. 그러나 시인의 시선이 닿으면 사물은 새로운 의미와 기억을 던져준다. 시인들은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의 눈이 머물고 있는 사물은 어떤 것인가?

〈한겨레출판·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인생 후반기, 다른 삶을 위해 필요한 것



공부하는 힘 살아가는 힘

도문 후유지 지음

"인생 후반전, 공부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살아간다. 지금부터는 오로지 나와 내 삶을 위해 공부하라."

인생 후반기에 들어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공부법을 담은 '공부하는 힘 살아가는 힘'이 출간됐다.

평생 공부의 모범을 보인 인간경영 작가 도문 후유지는 인생 후반기인 56

세에 베스트셀러 '소셜 유에스기 요전'을 출판해 일본 출판계의 주목을 받았다. 86세가 넘은 지금도 현역 작가로 왕성하게 활약 중이다.

그가 전하는 인생 후반기를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은 역시 '공부'다. 자격을 취득하거나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해하라고 말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인생 후반기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하고 실천적인 공부법을 제안한다. 책상 위에 몇 개의 사전을 비치한 후 내키는 대로 읽는 '사전 읽기', 신문을 밑에서부터 위로 읽기, 거리로 나가 살아 있는 날것의 정보 접하기 등이다. 〈청림출판·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7월18일 까지

소파 식탁 보상판매

쓰시던 소파 식탁을 최대 **200만원** 까지 (타사상품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 1899-0240